

상장기업IR

Korea
SME's
SCALE
Day



비상장기업IR

Korea
START
SCALE
Day



5/28(목)

■ 주제 | The Next Big Wave, 로봇&AI

- 클로봇
- 알에스오토메이션
- 엘라인
- 모벤시스
- 에이력스
- 에스비비테크
- 아이엘
- 코난테크놀로지
- 이모션웨이브
- 코스모로보틱스
- 칸에스티엔
- 모빈
- 로보에테크놀로지



본 리포트는 5월 28일 Korea SME's & Startup 행사
참석 후 당사 리서치팀에서 비상장기업 대상으로
작성한 후기(Takeaway 노트)입니다.

- 강영훈 선임연구원 [Innovation팀]
 - 서지현 선임연구원 [Tech팀]
-

Contents

- 1 | 상장 **클로봇** (466100)
- 2 | 상장 **알에스오토메이션** (140670)
- 3 | 비상장 **엘라인** (비상장)
- 4 | 비상장 **모벤시스** (비상장)
- 5 | 상장 **에이릭스** (475580)
- 6 | 상장 **에스비비테크** (389500)
- 7 | 상장 **아이엘** (307180)
- 8 | 상장 **코난테크놀로지** (402030)
- 9 | 비상장 **이모션웨이브** (비상장)
- 10 | 상장 **코스모로보틱스** (439960)
- 11 | 비상장 **칸에스티엔** (비상장)
- 12 | 비상장 **모민** (비상장)
- 13 | 비상장 **로보에테크놀로지** (비상장)

모벤시스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모션 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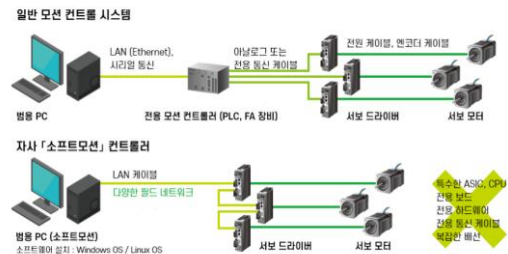
대표이사 김기훈

소프트웨어 기반 모션 제어 솔루션 개발 기업: 모벤시스는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공장 자동화 제어 시장을 소프트웨어 기반 초정밀 제어 솔루션으로 혁신하는 기업. 동사는 1998년 미국 MIT의 연구 과제에서 시작해, 2014년 한국 법인을 공식 설립. 현재 국내 본사 외에도 미국, 일본, 중국에서 현지 거점을 운영 중. 지난 수십년간 공장 제어 시장은 글로벌 하드웨어 업체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으나, 이러한 구조는 PLC(범용 제어기), CNC(가공용 제어기), 전용 모션 컨트롤러 등이 각자 독자적인 방식으로 모터를 제어하는 비효율적인 구조. 모벤시스는 비싼 하드웨어 컨트롤러 대신 동사의 소프트웨어만을 PC에 설치하는 것만으로 모터 제어 및 공정 자동화를 구현.

Real-time OS 기반 실시간 제어 확보: 동사의 솔루션 'WMX'는 CPU의 멀티코어 중 하나의 코어에만 실시간 제어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할당해 코어를 머신 및 모션 제어 용도로만 독립 구동. 이로써 시스템 오류 및 기타 작업 등으로 OS가 버벅거리더라도, 제어 코어는 실시간 응답성을 완벽히 유지 가능. 또한 기존 하드웨어 기반 구조에서는 인식부터 행동까지 300~500ms 이상의 지연이 발생 가능하지만, 동사의 소프트웨어는 50ms 이하까지 단축이 가능. 반도체·2차 전지·로보틱스 분야에서 누적 4만 개 이상의 라이선스와 500개 이상의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며 '25년 연결 매출 204억원을 달성.

미래 핵심 성장 동력 - AMR 제어 솔루션: 모벤시스는 '23년 미국의 자율이동로봇(AMR) 제어 관련 스타트업 Skylla Technologies를 인수. Skylla의 솔루션과 동사의 WMX 솔루션을 결합해 피지컬 AI로의 확장을 추진 중. 현재 로봇들은 엔비디아의 아이작 그루트 등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고차원 오더를 내려도, 디테일한 모션 제어가 불가능하면 응답 지연 및 지터(시간 편차)가 나타날 수 있음. 이에 시뮬레이션으로는 완벽히 구현해도, 현실에서는 버벅거리거나 오작동하는 문제가 발생 가능. 따라서 제어에 강점을 지닌 동사는 AI가 생성한 고차원 커맨드를 완벽히 실시간으로 즉각 매핑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고도화 중.

모벤시스의 소프트모션 컨트롤러



자료: 모벤시스

칸에스티엔

전통 공작기계에서 로봇 감속기 밸류체인으로

대표이사 구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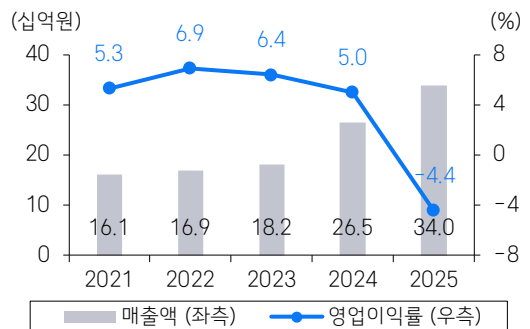
39년 업력의 정밀 기계 전문 제조기업: 칸에스티엔은 1987년 설립된 약 39년의 업력을 지닌 정밀 기계 전문 제조기업. 기존에는 공작기계 전문 제조 기업이었지만, 현재는 로봇 관련 기업으로 사업 주축 전환을 추진 중. 주요 제품은 전기 구동 CNC 및 장구형 워머 고속가공기, 워머 감속기 등으로 구성. 2015년부터 신기술 개발을 추진했으며,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기 시작해 현재까지 12개 기관으로부터 누적 141억원의 투자 유치. 현재 20명 규모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 중이며, 이 중 선행 연구개발팀이 중추가 되어 로봇 감속기 및 전동화 솔루션 등 신기술 개발을 주도 중.

핵심 기술 1) 전기구동 주축 시스템 기술: 기존 보편화된 공작 기계는 부품을 강하게 붙잡고(클램핑) 6,000rpm 정도로 고속 회전을 할 때 유압실린더 시스템을 사용. 다만 유압 실린더 시스템은 클램핑 압력을 수동조절하기 때문에 정밀제어가 어렵고, 전기 소모는 많지만 효율성이 낮았음. 다만 칸에스티엔의 전기 구동 액추에이터 기반의 주축 시스템은 모터 자체를 제거해 소음과 열을 차단하고 전력 및 탄소 소모를 극적으로 줄임. 이를 통해 '에코 스마트 CNC 머신' 모듈을 구축했으며, 전동화로 정밀 제어 데이터 확보 및 DB화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AI 기반의 모니터링 제어 기술을 완벽히 구축.

핵심 기술 2): 장구형 워머 기어 가공 전용 장비: '장구형 워머 기어'는 일반 원통형 워머 기어와 달리 기어 휠의 곡면을 따라 완벽하게 밀착 가능해 구동 효율이 극대화되고, 제로 백레시(유격)가 구현 가능. 동사는 디지털 트윈 기법을 활용해 공정 생산성을 높여 기존 5시간 소요되던 장구형 워머 기어 생산을, 무려 3분으로 줄였다고 언급. 이렇게 생산한 장구형 워머 기어는 로봇 감속기 등 각종 산업에 적용이 가능.

현재 재무 성과 및 향후 계획: 칸에스티엔의 '25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40억원, -15억원. 동사는 로봇 감속기·고속 가공기 등 신규 사업 투자로 작년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26년부터 경영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또한 '27년 하반기를 목표로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칸에스티엔, 삼성증권

모빈

이동성, 안정성을 모두 살린 바퀴 기반 실외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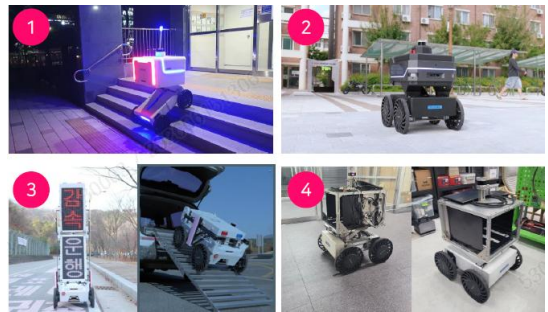
대표이사 최진

바퀴(Wheel) 기반 실외 서비스 전문 로봇 기업: 모빈은 현대자동차로부터 분사해 2022년 설립한 실외 서비스 전문 로봇 기업. 기존 실외용 로봇 중 바퀴 기반의 로봇은 물리적 장애물에 취약해 평지에서만 운영 가능하며, 다리형 로봇은 높은 제작/운영 비용 및 낮은 페이로드 등의 한계로 특수 목적용에만 적합하다는 한계를 보유. 이에 모빈은 바퀴의 압도적 이동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리형 로봇처럼 장애물을 모두 극복 가능한 'Flexible Wheel' 기술을 개발. 또한 바퀴만으로 일상적인 장애물을 완벽히 극복할 수 있도록 13개의 핵심 요소가 결합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융합 제어 기술을 통해 다리형과 바퀴형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포지셔닝에 성공.

자율주행 배달·순찰 로봇 라인업: 모빈의 로봇 제품 라인업은 하부의 베이스 구동부가 동일. 따라서 상단에 어떤 모듈을 결합하는지에 따라 순찰, 배달 등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빠르고 저렴하게 구현 가능. 동사의 제품 1)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실외부터 실내까지 모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 고객들에게 완벽한 비대면 도어 투 도어 배달 서비스를 제공. 현대건설의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에 기본 서비스로 도입이 확정되었으며, 인근 상가를 연계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2)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정해진 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이상 상황을 탐지하고, 관제 시스템과 연계해 안정적인 보안 관리를 제공. 현재는 경찰청 및 UAE 산하 기술 혁신 그룹과 협업해 실증을 진행 중.

베이스 플랫폼 기반 확장성: 자율주행 로봇 라인업 외에도, 동사는 하부 베이스 플랫폼 강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라이브러리를 확보 중. 예시로 한국도로공사의 요청을 통해 고속도로 작업 현장에서 로봇이 먼저 도로에 진입해 전방을 통제하는 '신호수' 로봇을 제작. 또한 안정성 및 장시간 구동 등의 장점을 살려 군사용 모듈러 플랫폼도 검토 중. 향후 다양한 로봇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하드웨어 베이스 플랫폼만 별도로 판매하는 BM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모빈의 다양한 실외용 로봇 제품 라인업



자료: 모빈, 삼성증권

로보에테크놀로지

AI 로봇틱스 기술 기반 물류 자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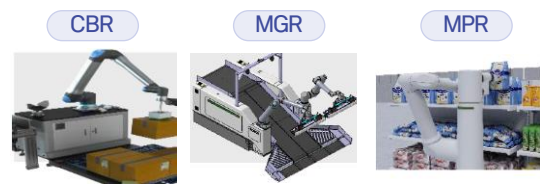
COO 홍경태

첨단 자율작업형 물류 로봇: 로보에테크놀로지는 컴럼비아 물리학 박사·두산그룹 부사장 출신의 이상훈 대표가 2021년 창업한 물류 전문 로봇 기업. 동사는 4가지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제작. 구체적으로 1) 현실 세계의 수많은 비정형 물체를 정밀하게 인식하고 판별하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2) 로봇 하드웨어 설계 기술과 정밀 모션 제어 알고리즘 3) 로봇 설계 및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 자체 물리엔진 기반 시뮬레이터 4) 3차원 공간에서 자율 이동 및 작업이 가능한 기술을 모두 자체 개발.

물류 제품 핵심 라인업: 1) CBR (Cart type Box-handling Robot)은 카트 형태의 이동형 박스 핸들링 로봇으로, 다양한 사이즈의 박스를 팔레트 위에 효율적으로 적재가 가능. 독자적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적재율 85%를 달성했으며, 별도 티칭 없이 10분내 가동이 가능. 2) MGR (Mobile Goods-Handling Robot)은 박스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물건들도 2,000PPH 이상의 속도로 상품 하차가 가능한 로봇. MGR은 한 번에 한 줄씩 내리는 시스템과, 최대 120kg까지 핸들링이 가능해 택배 화물 하역 작업을 빠른 속도로 가능.

핵심 기술 기반 차세대 제품 MPR: 동사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물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목표로 Unseen Object Piece Picking 기술을 개발. 해당 기술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처음 마주한 물건이더라도 어디를 잡을지 스스로 판단해 물건을 정확히 피킹이 가능. 또한 시각 데이터 분석을 통해 흡착형으로 잡을 수 있는 물건은 석션으로 먼저 잡고, 석션이 불가능한 복잡한 형태의 물건은 핑거형 기구로 전환해 피킹. 동사는 이 기술과 3차원 공간 자율 이동기술을 결합해 내년 MPR (Mobile Picking Robot)을 출시할 계획.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물류 센터에서 사람이 카트를 끌고 다니며 주문서대로 물건을 하나하나 담아오는 '오더 피커' 인력을 MPR 로봇으로 완벽히 대체하겠다는 목표.

핵심 제품 라인업 3종



자료: 로보에테크놀로지

성장기업IR

Korea
SME's
SCALE
Day



비성장기업IR

Korea
START
SCALE
Day



삼성증권 성장기업 IR DAY

대한민국 SME & Startup 기업들의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 산업별 기업들의 IR행사를 통해 성장스토리를 전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멤버십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멤버십 정보
소개

When

성장기업IR
-26년 5월~10월 넷째주 금요일

비성장기업IR
-26년 5월/10월 둘째주 목요일

Who

-VC, CVC, 비상장기업 투자 일반 법인
주요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중소형주펀드운용역 등

How

-멤버십에 등록하신 분들께 매달 멤버십
행사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매달 공유되는 멤버십 행사 정보를
확인하고 링크에 접속합니다.

Others

-본 멤버십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모든 일정의 참가는 자율입니다.



멤버십 신청 바로가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주세요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1954호(2026.06.19 ~ 2027.06.18)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시 수수료는 0.077%~0.5%(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

-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